진저티프로젝트

Research

ginger T project

연구

#세대

밀레니얼 세대 연구

- 파트너: 동그라미재단
- 진행기간: 2016년 8월 ~ 11월 (4개월)
- 목표: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이 그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지 찾아본다.

연구를 이끈 핵심질문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정말로 게으르고 수동적이며 비관적일까?"
"이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연구를 통한 실험

- 밀레니얼 세대가 재미있게, 역동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방향 설문조사가 아닌 쌍방향 온라인 인터뷰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 밀레니얼 세대의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도록 매거진 형식의 연구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연구자의 한 문장

"밀레니얼 세대는 변화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그 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색깔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자신의 내면을 울리는 사건과 이슈에 반응하고, 자신이 연결된 채널을 통해 전파하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시도하는 수많은 실험들은 언젠가 큰 무브먼트가 되어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낼 것이다.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
우리는 씨앗의 힘을 믿는다."
- 밀레니얼 세대 보고서 매거진 M 중에서

연구를 통해 발견한 인사이트

밀레니얼의 세대적 특징 5ME
- Entertain Me 재미, 덕후
- Now Me 현재, 경험
- Tech Me 기술원주민
- Enlarge Me 연결, 영향력
- Inspire Me 의미, 가치

밀레니얼의 활동 방식 5C
Cause 나, 감정, 재미 -
Change 명분보다 변화 -
Connect 느슨한 연대 -
Cohort 코드가 맞는 사람들 -
Cross-Sectoral 영역의 구분 없음 -

#사회혁신 #역량

사회혁신가의 여정과 역량 모델링

- 파트너: 아산나눔재단, 임팩트리서치랩
- 진행기간: 2020년 4월-12월 (9개월)
- 목표: 사회혁신가를 양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알아내고자 한다.

연구를 이끈 핵심질문

"사회혁신가는 누구인가?"
"사회혁신가는 어떻게 태어나고 성장하는가?"
"사회혁신가가 키워지지 않는, 발굴되지 않는, 소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를 통한 실험

- 스노우볼 샘플링 방법으로 진행한 온라인 심층 설문조사
  : 사회혁신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사회혁신가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심층 설문조사 응답자에게 주변의 사회혁신가를 추천해주기를 요청하여 식별된 사회혁신가들의 순도 높은 의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함께 진행한 연구 공동체
  : 진저티프로젝트와 임팩트리서치랩은 연구공동체로서 공동의 학습과 공동의 목적을 촘촘히 쌓아 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혁신의 주체인 사람들간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먼저 실험할 수 있었고, 그 필요성과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만든 목소리

"사회혁신가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궁금했어요. 사회문제가 많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회혁신가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건 아니니까요." - FGI 참가자 H

"혁신이라는 것은 내 언어를 못찾는 답답함과 막막함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전에 없던 필드를 만들고, 이전에 없던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막막함에서 생기는게 이노베이션이지. 내가 잘 알던 방식으로 잘해야지 하는 것은 이노베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 FGI 참가자 K

연구를 통해 발견한 인사이트

'누구나 사회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모두가 사회혁신가는 아니다.'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 혁신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혁신가들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소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혁신가의 여정이 외로운 길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방향을 걷는 동료들의 존재와 상호작용이 '콜렉티브 임팩트'의 시작이자 사회혁신가들의 지속가능성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교육 #교육혁신

부천 마을교육생태계 구축 연구

- 파트너: 부천미래교육센터, 부천시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진행기간: 2022년 6월-11월 (6개월)
- 목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생태계 구축 및 부천 미래교육센터 설립에 맞춘 미래교육의 토대를 구축한다.

연구를 이끈 핵심질문

"부천 교육공동체가 바라는 미래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
"부천 미래교육생태계는 어떻게 구축되고 발전할 수 있을까?"

연구를 통한 실험

- 연구 과정에서부터 교육생태계를 경험하다: 연구에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교육생태계'를 경험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연구하면서 학습한다: 국내외 문헌조사 내부 스터디 및 발제, 인터뷰 전사 기록 및 내부 발제, 워크숍 전사 기록 및 내부 발제 등 연구팀이 따로 또 같이 스터디하고 발표하면서 서로의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쌓아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를 만든 목소리

"아이들에게 마을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어른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 가장 안전하게 느끼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요."
- 워크숍 참여 학부모 L

"학생들의 배움에 조금 더 자율성을 주면 청소년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마을활동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요." - 워크숍 참여 학생 N

"학교 안에서 배우는 것과 학교 밖에서 배우는 것이 다르지 않은 것, 교육과 삶은 더이상 동떨어질 수 없어요. 학생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 워크숍 참여 교장 K

연구를 통해 발견한 인사이트

'미래교육생태계' 개념을 제시하다: 부천 청소년을 둘러싼 교육생태계를 상상할 때, 생태학적 교육 환경(Life-wide)과 생애단계별 교육 경험(Life-long), 교육경험의 깊이(Life-deep) 3가지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조망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우리-마을' 워크숍에서 '학생-교사-학부모-마을강사-미래교육센터 구성원'이 원탁에 둘러 앉아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마을교육생태계의 씨앗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비영리 #변화

서울시 NPO 트렌드 리포트

- 파트너: 서울시 NPO 지원센터
- 진행기간: 2018년 10월-12월 (3개월)
- 목표: NPO 트렌드 조사를 통해 변화의 흐름을 제시
  NPO와 공익활동가들에게 새로운 방향 전환의 계기 제시한다.

연구를 이끈 핵심질문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마주하고 있나요?"
"새롭게 한 발을 내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구 내용

- 어떻게 하면 비영리 섹터를 넓게 조망하면서도 우리가 마주한 변화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NPO 트렌드 리포트 [변화, 읽다]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가의 마음을 읽어보려는 시도였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NPO에서 일하는 활동가들과 깊이 있는 온·오프라인 인터뷰를 해 트렌드 리포트에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담아보았습니다.
- 변화란 나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이기도 하지만, 내가 세상을 향해 발신하는 삶이 만들어내는 파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울시 NPO 지원센터와 2019년에 발행한 트렌드 리포트 [변화, 읽다]는 활동가들이 감지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고, 그 속에서 각자가 느끼는 감각과 감정을 기록하고, 자신이 만들어가고 싶은 시도가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연구자의 한 문장

"변화란 무엇일까요? 변화는 나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세상을 향해 발신한 삶이 만들어낸 파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변화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시도와 실험이,
성공과 실패가 모여서 만드는 길이자 흐름입니다."
- NPO 트렌드 리포트 <변화, 읽다> 중에서

연구를 통해 발견한 인사이트

- **우리의 재탄생**: 조직이 기반이 되는 운동에서 개인과 프로젝트가 기반이 되는 운동으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 **조직의 재창조**: 조직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것 자체로 새로운 운동이 되었습니다.
- **감각으로 운동하는 세대**: 거대한 명분보다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싶은 열망이 운동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 **실험하는 돈**: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실험을 지원하는 돈이 등장했습니다.

#로컬 #문화기획자 #역량

영도 문화기획자의 성장 연구

- 파트너: 영도문화도시센터
- 진행기간: 2021년 10월-2022년 6월 (9개월)
- 목표: 영도문화도시센터가 양성한 문화기획자들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를 이끈 핵심질문

"문화기획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영도라는 지역에서 문화기획자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
"더 많은 문화기획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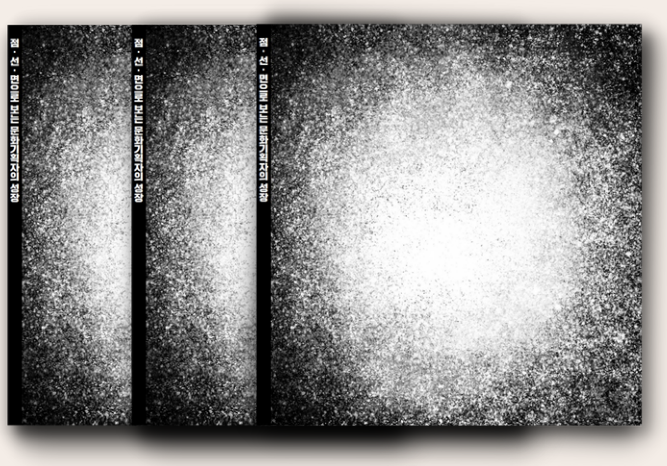
연구를 통한 실험

- 점선면이라는 단계를 회화적으로 표현한 연구 결과물
  : 문화라는 분야, 문화기획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결과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보고서 형식의 흑백의 텍스트로만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문화가 가진 다양성을 다 담지 못하기에 점선면이라는 도형의 요소로 회화적 표현을 시도했다. 각 단계 별 성장 단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연구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를 만든 목소리

"문화기획자로서 하는 일을 설명하는 게 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자 안에 있는 글이 그걸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것 같아서 울컥했어요." - 점점 워크숍 참여자 L

"점선면이라는 성장의 단계 자체가 문화기획자 보다도 한 개인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처럼 읽히기도 해요. 어떻게 끝까지 꾸준하게 버티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그 마음 같은 문장이 있네요." - 점점 워크숍 참여자 H



연구를 통해 발견한 인사이트

- '문화기획자' 는 특정할 수 없는 모호함을 가졌지만 분명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저티프로젝트 특유의 참여 연구 방법을 활용해 연구 결과물을 만들 뿐 아니라, 연구 과정 속에서 '문화기획자'들을 '문화기획자'라고 호명하며 성장을 읽어주고 참여를 격려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연구 결과물 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연구대상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연구의 결과물을 회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결과물은 저희에게도 또 새로운 실험이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연구 결과물이 그 특성에 따라 충분히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때론 과감하게 새로운 형태를 실험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교육 #교육혁신

고양시 수업 혁신,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 발전방안 연구

- 파트너: 고양시청
- 진행기간: 2019년 4월-10월 (7개월)
- 목표: 배움이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를 이끈 핵심질문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연구를 통한 실험

- 학교 안팎이 연결되는 실제 수업 현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수업당 3~4회의 현장 모니터링과 심층 인터뷰, 수업 계획서/결과보고서 분석, 온라인 서베이를 진행했습니다.
-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새로운 수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핵심 교사 그룹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그들과 소통했습니다.
- 새로운 수업 모델인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의 설계/운영/평가/지속을 위해 자체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습니다.

연구를 만든 목소리

"선생님은 선생님 입장에서 가르쳐주시고 말씀해주시는데, (베이커리) 사장님은 직접 먹어보시면서 손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피드백 해주시니까 그게 좋았어요. 사장님은 제빵과 창업을 모두 직접 경험해보신 분이잖아요. 게다가 대화역 근처에 계시니까 뭔가 더 가깝게 느껴지고요. 궁금한 게 있고 질문하고 싶을 때 언제든 가서 물어볼 수 있는 분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 고양시 일산고 학생 K

연구를 통해 발견한 인사이트

- Bottom-Up 방식으로 시작된 변화는 더욱 강력하게 확산됩니다.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학교 안팎을 묶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은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어디나 교실이 되고 누구나 교사가 되는,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의 모델을 제안합니다.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의 설계 및 운영을 돕는 5가지 원칙을 활용하여, 수업을 기획하고 점검하고 회고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 중심 설계
  - 배움과 삶의 연결이라는 목표
  - 지역을 교실로 바라보는 관점
  -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구조
  - 성찰하고 반영하는 문화

#비영리 #역량

공익활동가 역량 요소 연구

- 파트너: 서울시NPO지원센터
- 진행기간: 2015년 6월 ~ 11월 (6개월)
- 목표: 공익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역량과,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는다.

연구를 이끈 핵심질문

"앞으로 10년, 공익활동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

연구 내용

- 급변하는 사회에서 10년 후 공익활동의 미래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역량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2015년 6월부터 6개월간 진저티프로젝트의 첫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 공익활동가 191명의 인터뷰 및 워크숍,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미래 환경 변화 요인과 7가지 미래 환경 변화 대응 역량, 5개의 기본역량을 도출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한 실험

- 공익활동의 미래 환경을 상상해 보는 첫 시도인 만큼, 연구 모든 과정이 실험적이었습니다. 모든 단계에 참여자가 직접 참여하는 액션 리서치 방식, 참여자들이 직접 10년 후를 상상해보는 시나리오 기법 등을 활용해 활동가들과 함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 Ahead of the game! 공익활동가들이 변화에 대응하는 걸 넘어서, 변화의 물결에 앞장서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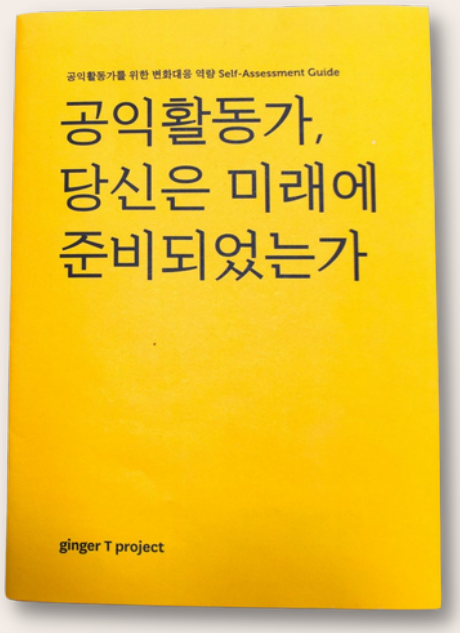
연구를 만든 목소리

"이 변화를 어떻게 직면할지 계속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비영리 섹터의 흐름을 이해하고 관찰하는 것 같아요. '보는 역할'을 통해 조직 안에 이런 변화들을 공유한다면 '장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 연구 참가자 L

연구를 통해 발견한 인사이트

미래 환경의 변화 양상과 그에 따른 공익활동가의 대응 역량을 정리했습니다.

- 주요 미래 환경 변화 트렌드
  - 저소득, 고비용, 저성장
  -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회문제
  - 기술 역량의 중요성 증대
- 미래 환경 변화 대응 역량 7가지
  - 문화 창조 역량
  - 변화 관리 역량
  - 동기 부여 역량
  - 협력적 해결 역량
  - 스토리텔링 역량
  - 기술 활용 역량
  - 플랫폼 활용 역량
- 기초 역량 5가지
  - 윤리성
  - 다양성과 존중
  - 신뢰와 책임
  - 학습과 성장
  - 성과 관리



변화를 읽습니다

지식을 짓습니다

네트워크를 디자인합니다

ginger T project

진저티프로젝트